

夏期 學生 啓蒙運動 實施 指針私見[제6회, 全6回]

黃郁

七. 啓蒙隊와 農村青年

지금까지는 全部 아무것도 모르는 農村아이들과 靑年들을 가르치는 境遇를 가정하고 적어 나온 것임은 누구 나다 知悉할바어니와 啓蒙隊員에게는 決코 그러케 아주 初步인 아이들만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半數以上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앞서 工夫한것이잇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런境遇에는 敎材의 程度에 썩으나 注意하여야 될 것임은 勿論이고 敎授上 困難도 많고 또 재미도 많이 잇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케 程度 다른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到底히 한사람의 힘으로는 가르쳐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타고 배우려 오는 아이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뜻맞는 學生동무가 한 통리에 여러 사람 잇기도 힘든 것이니, 이런 境遇에는 程度가 좀 高等한 아이들을 밤時間으로 돌리는 것도 좋고 또 될 수만 잇으면, 동리에 뜻 잇는 靑年들로서 時間에 多少餘裕잇는사람을 붓잡어서 助力을 시키는 것은 더욱 좋은 方法입니다. 이 方法이 많이 應用될것을 믿고 또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方法으로하여 學生동무 여러분은 眞實한 農村의 靑年들과 接觸할수잇고 따라서 農村靑年들이 가고 잇는 길을 짐작 할 수 잇으며, 그와 同時에 그들에게 新聞과 雜誌같은 것을 提供하며 읽어 줄 수도 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啓蒙 運動隊을 標準으로하고 쓰니까 隊員이 主人이 되고, 農村靑年이 助力者가 되지만 事實에 잇어 서는 이 主客關係는 뒤집힐 것이니 卽 農村靑年들이 가지고 잇는 機關을 通하여 또는 農村靑年個人的 힘에 依하여 敎授가 始作될때가 많을 것이고, 또 農村靑年들이 主動이 되고 學生隊員들은 一時 招聘을 받은 사람이 助力者같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農村靑年들과 굳게 握手하는것이 必要함은 單純히 上述한바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重大한 必要를 가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한 바이지만 여름동안 四十日은 「敎育」을 爲하여서는 너무나 짧은 것어서, 그동안 조금 배우고 그만 또 집어치우면 그야말로 一日曝之에 十日塞之하는셈이 되어 일□알으킨 것도 效果가 몹시 적을 것입니다. 만일 農村靑年들과 握手하여 그들과 한가지로 가르치다가 開學되어 上京할때는 다시 全部 다 農村靑年에게 맡겨 繼續하여가르치도록 한다면 여름 四十日공부한 것이 完全히 效果가 있어서 얼마동안씩 더 繼續하여 공부하면 「한글」을 完全히 學習할수들 잇을 뿐 아니라 熱心으로 工夫하는 아이들은 普通學校다니는 아이들만치, 아니 惑은 오히려 實際的인 知識을 더 많이 가지게 할 수도 잇을 것이외다. 夏期啓蒙運動을 單純히 夏期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夏期 啓蒙運動의 最大의 目標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되풀이하여 부탁할 것은 처음부터 너무 크게 始作하려하지말 것이니,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려면 거기에는 반듯이 場所問題, 經費問題, 許可問題 等여러가지 困難한 問題가 생겨서, 회지 부지하여 버리기가 쉬웁고 그러치 않다 하여도 그다지 좋은效果를 얻기 힘드는 것임을 다시금 警告하여두나이다.

學窓에서 가지신 여러분의 神聖한 「브나로드」(民衆의 속으로)의 熱血이 民衆을 만나자 곧 식어버리지 않기를 千萬번 祝願합니다.